

# 한국 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II

## - 기하학적 문양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mtemporary Fashion Design with the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II

이 명 준\* · 최 현 숙

Myung-Jun Lee\* · Hyon-sook Choi

한서대학교 겸임강사\*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anseo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 Abstract

Acculturation is incessantly taking place in the process that globalization is making a rapid progress. And it occurs beyond space and time. In this stream, orientalism and ethnic look have been in the limelight in several fields, such as social, cultural, artistic fields, as they have become the principal themes of contemporary fashion since the 1990s. In keeping with this stream of the time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raditional Korean embroidered patterns, especially the geometrical pattern, against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the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The reason is that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has a long history and reflects ev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 to an extent tha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emerged at the same time with the fomentation of Korean people. Accordingly, it is thought to be easily accepted in several parts of the worl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the geometrical pattern.

This study adopt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

First, it attempted to make a diachronic investigation of the concept, characteristic and evolutionary process of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through the descriptive study and analyze the concept and kind of geometrical patterns.

Second, it sought to examine that geometrical patterns are the design shown in national costume in several parts of the world by reference to empirical materials such as collections, photos, design and the like in the museum and investigate the plasticity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 and ornaments.

Third, it attempted to introduce the case that geometrical patterns are applied in the world fashion circles, analyze the works of Korean designers with a focus on traditional Korean embroidered patterns and investigate the scheme for its application. And this study were much helped by the previous studies groping for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pattern and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d the method to apply the geometrical pattern of traditional embroidery to contemporary fash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ay the foundation for recreating the Korean image and globalizing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

**Key Words** : acculturation, globalization of the traditional pattern,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geometrical pattern

## I. 서론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다. 밀레니엄 새천년의 21세기라는 말도 이제는 진부하게만 느껴진다. 바야흐로,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하였다. 고도로 발달한 매스미디어의 정보망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은 서로 공유되어진다. 베네딕트 앤더슨<sup>1)</sup>이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매개물로 지목했던 신문과 방송이, 이제는 초국가적이고 탈민족적인 ‘지구인’을 엮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는 끊임없이 접변한다. 다만, 이전의 문화 접변이 지리적 제약 속에서 진행된 반면 근래의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차이를 가진다.

이와 같은 거시적 흐름의 맥락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오리엔탈리즘과 에스닉(ethnic)은 현대 패션의 주요 테마를 이루며 많은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sup>2)</sup> 또한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퓨전 문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하면서 자국의 전통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재해석하려는 제 3 세계의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전통 문화를 세계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전(全)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수십여 년 간의 작품 활동 속에서 한국 전통 문양 자수를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앙드레 김이나, 최근 한글을 모티브로 문양을 재창조하여 메스컴에서 극찬을 받은<sup>3)</sup> 이상봉 등의 많은 디자이너들을 그 선발 주자들로 꼽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문양의 세계화’ 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 전통 자수 문양, 그 중에서도 기하학적 문양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하학 문양은 가장 오래된 문양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인류 보편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추상화되어 매우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명징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자수의 개념과 특성, 변천과정을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펴보고, 기하학적 문양의 개념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둘째, 박물관 소장품과 사진 및 도안 등 실증적 자료를 참고하여 기하학적 문양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에 등장하는 도안임을 검토하고 한국 전통 복식의 조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서 기하학 문양이 응용되는 사례를 소개한 뒤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통자수 문양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통 문양과 현대 패션의 결합을 모색했던 선행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한국 전통 자수의 고찰

자수(刺繡)란 형짚·가죽 등의 표면에 실, 끈, 리본 등을 바늘 또는 바늘 모양의 도구로 꿰어서 수놓은 그림이나 도안을 총칭하는 말이다.<sup>4)</sup> 바늘땀을 나타내는 ‘자(刺)’는 천의 울을 주워서 꿰는 방법을 뜻하는데 반해 ‘수(繡)’는 ‘자의 기법을 사용해서 울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꿰매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형짚이나 가죽을 도려 내거나 씨실을 뽑아내어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수(繡)’는 그 수법과 문양이 매우 다양하다. 인류가 의복을 만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수의 역사도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염색, 문양직 기법보다 이전에 이미 자수가 발생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자수 문양은 장식적, 상징적, 종교적, 혹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특유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특권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치였으나 점차 일반 민중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1. 한국 전통자수의 사적고찰

### 1) 기원

동양 자수의 시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선사 시대를 그 시작으로 본다. 정영양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선사 시대에 견직물을 사용하여 사면의 의복이 제작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수 예술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한편 동양을 대표하는 비단 자수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발흥하여 이란을 거쳐 기원전 1000년 경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한국의 전통자수는 삼국 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전파되었는데, 학자들은 한(漢) 나라 무제가 한반도 북방 지역인 낙랑에 군 기지를 확보하고 무역을 시작할 무렵인 108년경으로 그 시기를 추정한다.<sup>6)</sup>

당시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현재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당시의 여러 문헌을 통해 고대의 자수 문화(를)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지의 부여전에 부여인들이 ‘회(繪. 무늬 없는 일반 비단으로 오늘날의 명주와 유사)’, ‘수(繡. 천 위에 여러 색깔로 수놓은 비단)’, ‘금(錦. 일정한 무늬를 넣어 짠 비단)’, ‘계(罽. 동물의 털로 짠 모직물)’로 지은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한반도에서는 자수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으리라 짐작 할 수 있겠다.

### 2) 삼국 시대

삼국 시대의 자수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사서 등 많은 문헌들에 나타난다. 삼국사기에서는 ‘정월 초 길일에 왕은 자주빛 넓은 소매의 도포를 입고 푸른 비단 바지에 금빛 꽃을 꿰고 새 모양의 수를 놓은 관을 쓰고 희 가죽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서 조회를 거행하였다’ 라고 쓰여있으며, 사서에서는 ‘고구려인의 관모가 자라, 백라, 청라, 황라 같은 재료를 써서 지어졌고 예복은 금과 수로 만들어 입었다’ 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감진총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당초문과 왕자문이 채색된 비단을 그린 흔적이 남아 있고, 5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평남 강서군 고분 벽화에는 소매 끝동과 깃에 수놓은 옷을 입은 여인이 등장한다.<sup>7)</sup>

이 시기의 자수는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부족 국가가 왕족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 신분제 사회가 고착화 되면서 의복이 곧 신분을 표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수는 곧 신분과 권위 과시의 역할을 일임하게 되었고, 따라서 평민이 옷에 수를 놓는 것은 칙령으로 금지되었다.<sup>8)</sup>

### 3) 통일 신라 시대

삼국 시대가 한국 전통자수의 생성기였다면<sup>9)</sup> 통일 신라 시대는 질적인 발전과 양적인 발전을 모두 이룬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당나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풍조를 선호하게 되었고, 자수 역시 그 소재와 기법 면에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국가에서 수를 놓은 직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령을 내릴 정도였다.

### 4) 고려 시대

현재 전해지는 고려 시대의 자수 작품은 ‘사계분경도’와 ‘기호산신도’ 등의 몇 작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려한 귀족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이니만큼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식 자수가 성행하였고, 귀족 계층이 아닌 평민들도 자수를 향유하였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소재에 불교와 관련된 인물, 설화가 많이 등장한다.

### 5) 조선 시대

유교 문화권에 포섭되었던 조선 시대에는 사치를 경멸하고 소박함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활옷을 제외한 당시의 복식 역시 비교적 자수 장식을 적게 하였다.<sup>10)</sup> 국가 차원에서 자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업적인 자수 제작 또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궁중 문화가 발달했던 조선 시대에는 궁수와 민수가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궁수는 수방이나 관구 조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제작되었다. 궁 안에 따로 도화서원, 금·은사, 염색장이 갖추어져 있었고, 수방 궁녀 또한 따로 뽑아 왕실의 복식과 용품을 만들게 하였다.

단종 2년에 제정된 흉배 제도 역시 궁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벼슬 또는 신분을 상징하는 무늬를 수놓은 네모난 비단 형질을 관복의 가슴과 등에 달도록 한 것이 흉배인데, 명나라에서 제도화되었던 이 관습은 1370년 경 홍무제(洪武帝)가 외교 관계를 회복할 때 왕에게 흉배와 용포 일습을 선사하면서 유입되었다.<sup>11)</sup> 왕실에서 육성된 궁수는 예술성과 기교면에서 세련되고 격조 높은 작품을 많이 배출하였다.

여염집 규수들이 반드시 익혀야 했던 민수는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 자연 풍경을 담은 산수화, 민화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민수는 내용이 풍부하고 유형이 다양하며, 활발하고 대담한 색채와 기법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한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한 구도 속에서도 다양한 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sup>12)</sup>

### 6) 근·현대

한편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근대 교육에 자수가 포섭된다. 여학교에서 교과목의 하나로 자수를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이 이를 맡게 되었으므로 일본 자수가 유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끈사<sup>3)</sup>가 아닌 끈사<sup>4)</sup>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원색 보다는 중간색을 선호하게 되었다. 장식적 목적보다 미적 목적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해방 이후에는 자수의 위상이 크게 낮아져서 독립된 교과목에서 탈락되었으며 프랑스 자수가 유행하였다.

## 2. 한국 전통 자수의 특성

### 1) 다양한 활용성

한국의 전통자수는 비단 의복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었다. 베갯모, 보료, 방석 등의 침구류에서부터 부채, 땡기, 주머니, 노리개 등의 장신구류와 수저집, 보자기에 이르기까지 천과 가죽을 재료로 삼은 거의 모든 물건이 자수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가사를 꾸러가는 여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침선이 장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양의 상징성

무늬는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기 마련이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전통문양이라 일컫는다.<sup>15)</sup>

한국 전통자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문양의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한국 전통자수만의 특징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동양 자수의 장식 문양은 예술, 선사 시대의 상형문자, 그림 문자, 서예 등에서 비롯되었

기 때문이다.<sup>16)</sup> 기하학적 문양은 물론이고 자연을 소재로 놓은 수 역시 회화적인 재현 그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안이 내포하는 상징을 담고자 하였다. 한 땀 한 땀 수공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자수의 특성상 자연히 제작 과정에서 구복의 염원이 강하게 깃들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하위문화로서 전통자수는 한국인이 공유하는 종교적 상징체계를 그대로 표상하고 있다. 서구 문명의 바탕이 기독교라는 단일 종교임에 비해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는 불교, 유교, 도교, 음양오행, 풍수지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각 종교의 상징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결합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였으며, 도안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소나무, 학, 사슴, 거북이 등,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십장생은 불로장생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호되었던 문양 주제 중 하나였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금침과 베갯모에는 다산과 부부 금실을 희구하는 의미가 담긴 연꽃, 원앙, 잉어 등이 주로 등장하였다. 그런가하면 궁중 가례복인 활옷에는 십장생뿐만 아니라 불로초, 봉황, 모란, 연꽃, 백년동락 등 백년가약을 축원하기 위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상징들이 총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구복의 염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아예 한자 자체를 수놓기도 하였다. 이를 길상이 문양이라고 하는데 기쁨, 장수, 복, 부귀, 영화, 다남 등의 뜻글자를 문양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적 자수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과 봉황 문양이다. 역사적으로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동물로 오직 왕실의 물건에만 수놓을 수 있었다. 한국 역사상 통일 신라 때 최초로 등장했던<sup>17)</sup> 용포(龍袍)에는 가슴, 등, 그리고 어깨에 용을 수놓은 보를 붙였다. 또한 왕족의 위계를 의복의 자수 문양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국왕과 왕비의 옷에는 발톱이 다섯 개 달린 오조룡이 그려진 반면, 왕세자와 세자빈의 옷에는 사조룡, 왕세손의 옷에는 삼조룡을 이용하였다.

### 3) 색의 상징성

문양뿐만 아니라 수에 사용된 색 역시 상징체계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황, 적, 흑, 백, 청의 오정색(五正色)과 이를 혼합한 녹, 벽, 홍, 주황, 자색

의 오간색(五間色)을 통해 세계를 분류하였다. 각 색은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뚜렷한 실체를 가진 형태와 마찬가지로 관념적 존재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았다.<sup>18)</sup> 이 색 체계는 음양과 방위를 나타내는데, 오정색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며 동방과 서방 사이에 벽색, 동방과 중앙 사이에 녹색, 남방과 서방 사이에 홍색,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자색, 그리고 북방과 중앙 사이에 주황색이 각각 위치한다. 오정색은 양을 상징하는 반면 오간색은 음에 해당된다.<sup>19)</sup>

한편 실과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염료는 대부분 식물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비쌌다. 그 중에서도 수입품에 의존해야 했던 붉은 색은 몹시 귀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대체로 저채도 고명도의 순한 색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탕천은 주황색, 다홍색, 앵두색, 진분홍색, 수박색, 배추색, 연두색, 옥색, 청옥색, 미색 등 중간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가장자리는 대부분 금색과 검정실로 둘러서 문양을 더욱 선명하게 하였다.<sup>20)</sup>

### III. 한국 전통자수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문양의 고찰

#### 1. 기하학적 문양의 개념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을 되짚어 볼 때 예술 활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바로 기하학적 문양이다. 선사인들이 울산의 암각화에 바위를 쪼아 그려 넣은 것은 동심원, 사각형, 직선 등이었다. 학자들이 기하학적 문양을 정의 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기하학적 문양이 인류가 태초에 지닌 추상 능력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패션 큰 사전 편찬위원회는 기하학적 문양을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무늬로 글, 점, 선 등을 엇갈리게 만든 추상적 무늬’라고 정의한다.<sup>21)</sup> 김선희는 ‘기하학적 형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이지적 사고 체계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sup>22)</sup>

즉, 동식물 문양이 자연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면, 기하학적 문양은 자연 현상을 추상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동기 시대의 각종 제기(祭器)에 나타난 기하학적 문양들은 현재 번개, 구름, 태양, 물결, 산 등을 단순화시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기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의 창조 활동의 결과물인 기하학적 문양은 모든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암굴 벽화에서 제기, 담장에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

#### 2. 기하학적 문양의 종류

기하학적 문양은 점문, 선문, 직선문, 물결문, 원형문, 아자문, 만자문, 태극문, 길상문, 기하문(단청문양), 당초문(단청문양), 귀갑문(단청문양), 문자문 등 그 종류가 무수히 많다. 모든 기하 문양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문양에서 자주 쓰이는 아자문, 만자문, 태극문, 물결문, 길상문, 팔괘문, 격자문, 떡살문 등 대표적인 여덟 종의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자문

아(亞) 자는 본래 농묘의 묘실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원시사회의 의례 집행자 또는 사제자의 직능을 상징화한 것이다. 상하좌우가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 회문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되었다. 연속무늬로 이루어졌을 때는 영원히 뻗어 나가는 모양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자에 따라 번개문을 단순화 시킨 뇌문의 일종으로 보거나 농경문화에서 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sup>23)</sup>



<그림 1> 베갯모  
출처: 전통자수. p.28.



<그림 2> 베갯모(19세기)  
출처: naver.com



<그림 3> 만자등  
출처: naver.com



<그림 4> 베갯모  
출처: naver.com

## 2) 만자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글자인 만(卍)의 기하학적 모양을 이용한 것으로, 아자문과 마찬가지로 끊어지지 않는 모양을 통해 부귀와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일종의 주술에 관한 부적이나 불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들어와 승불정책을 썼던 고려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태양의 회전을 상징한다는 설과 북두칠성의 회전을 상징한다는 설이 있다.<sup>24)</sup> 가구와 도자기, 담, 벽, 장신구 등 다양한 용도에 장식적으로 쓰였다.

## 3) 길상문

길상문은 그것이 새겨진 낙랑 시대의 기와가 발굴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문양이다. 길상을 내용으로 하는 한자를 배열하여 길상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찍이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길상문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자를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증을 두어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조형성을 높였다.<sup>25)</sup>

상류층에서는 주로 부귀영화(富貴榮華), 만수무강(萬壽無疆), 부귀다남(富貴多男) 등 성문으로 된 길상문을 사용하였고, 서민들은 수(壽), 복(福), 부(富), 귀(貴), 희(喜), 만(卍), 녕(寧) 등의 단자를 선호하였다.<sup>26)</sup> 특히 희(喜)자를 추상화하여 이를 마주 붙인 것을 쌍희 무늬라 하는데 부부, 문무 양반, 군신, 부자간에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였다.

길상문은 주로 떡살과 18~19세기 도자기 문양으로 크게 각광받았으며 건축, 의상, 생활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5> 두루주머니  
출처: 우리규방문화. p.61.



<그림 6> 조끼.  
출처: 이렇게 좋은 자수.  
p.218.



<그림 7> 태극문  
출처: daum.net



<그림 8> 부채(19세기)  
출처: 우리규방문화.  
p.75.

## 4) 태극문

태극은 우주의 생성과정을 상징하는 신성한 부호로써, 음양의 의미한다. 이태극문, 삼태극문, 사태극문이 있으며 그 중 삼태극은 천(天)·지(地)·인(人)을 뜻한다. 음양의 화합을 통해 풍년을 다산을 기리는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

## 5) 물결문

점을 연결하거나 선을 그어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이 문양은 낭수(浪水, 치솟는 모양), 외수(外水, 잔잔히 흐르는 모양), 그리고 입수(立수, 물결치는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자 영원한 존재인 물을 소재로 한

만금 장수와 복해(福海)를 상징하며, 조선 시대 이후 물결 조(潮)자와 조정 조(朝) 자의 발음이 같아 조정을 상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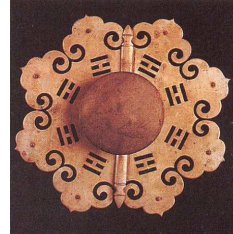
<그림 9> 고배  
(삼국시대)  
출처: pattern.go.kr



<그림 10> 필낭  
(대한제국시대)  
출처: pattern.go.kr



<그림 11> 팔괘문  
출처: naver.com



<그림 12> 팔괘문  
출처: pattern.go.kr

#### 6) 팔괘문

팔각형의 틀에 팔괘를 음각한 것으로, 팔괘는 음양소장의 상태와 길흉화복이 모두 들어 있다. 끊기지 않고 길게 이어진 것을 양효, 가운데가 끊긴 것을 음효라고 하는데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 세계를 이 효로 표현할 수 있다. 양효 한 개와 음효 두 개가 짝지어서 괘를 이루며 두 괘가 모여 64괘를 이룬다.

#### 7) 떡살문

떡살에 나타난 원은 무한과 영원을 나타내며 불교에서는 생명의 수레바퀴를 상징한다. 일정한 주기를 거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떡살의 문양들에서 가장 두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삼다신앙(三多信仰)이라하는 다수(多數), 다부(多富), 다남자(多男子)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흥액을 막는다는 주술적 요소와 부적의 역할도 하였다.



<그림 13> 떡살  
출처: naver.com



<그림 14> 백자떡살  
출처: Pattern.go.kr



<그림 15> 청화백자 소연적  
출처: pattern.go.kr



<그림 16> 공고문  
출처: pattern.go.kr

#### 8) 격자문

가로 세로의 직선이 같은 간격으로 문살처럼 직각으로 교차해나가는 모양의 무늬로써, 한국에서는 흔히 문살 무늬 또는 정(井)자무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창살이 짜여진 창호를 정자 살창호라고 한다. 이것이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놓였을 때는 빗살이라고 한다.



## IV. 복식에 표현된 기하학적 문양의 자수

### 1. 동양 전통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적 문양의 자수

의복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이래 미(美)와 장식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본성에 충실하여 인류는 옷을 끊임없이 장식하여 왔다. 선사시대의 샤먼의 제의(祭衣)에 방울과 깃털을 달아 주술적 상징을 부여하기도 했고, 수를 놓거나 천을 덧대어 의복을 꾸미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하학 문양은 많은 문화권의 전통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자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동양전통 복식으로 국한하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선문을 새겨 넣은 중국 전통 의상인 상복괘<그림 17>와 하피<그림 18>를 보면, 아랫단과 소매 등에 사선을 넣어 깔끔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시각적 아름다움과 장식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Furisode Kimono<그림 19>는 자연의 재현과 선문의 추상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걸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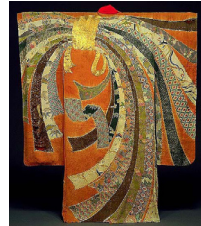
떡살문 역시 그 간결성으로 인해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20>은 인더스 문명의 소녀들이 입은 원피스인데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대담하게 장식한 떡살문이 특징이다.



<그림 17> 상복괘 (常服褂)  
출처: naver.com



<그림 18> 하피(霞帔)  
출처: naver.com



<그림 19> Furisode kimono  
출처: 일본 교토박물관



<그림 20> 75woman's tunic  
출처: Colors of the indus. p.46.



<그림21> the monk wears  
출처: Tibet on the paths of the Gentilemen Brigands. p.151.



<그림22> 올포  
출처: 동양자수의 근원과 역사.p.92.

불교의 한자 등 우리나라와도 문화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티베트 전통 의상에서는 아자문과 길상문 등이 발견된다. <그림 21>과 같은 라마승복의 등 뒤 화려한 띠는 아자문을 이용한 장식이 두드러지며,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입는 전통 의상은 복을 빌고 악귀를 쫓기 위해 길상문으로 수를 놓은 장식이 돋보인다.

한편 위의 <그림 22>과 같이 임금과 왕조의 영원성을 기원하기 위하여 왕이 입은 옷에 물결문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 2. 한국 전통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적 문양의 자수

우리나라 전통 복식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의복에 등장한 기하학적 문양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발견된다. 기하 무늬를 산점 구도로 배열한 의복<그림 23>이라든가 세로 줄무늬 옷을 입은 인물<그림 24>, 그리고 동암리 고분 벽화의 격자무늬 바지저고리 등이 그 예이다. 벽화로만 남아있어 자수의 형태로 남아있는 기하학적 문양은 드물지만 우리 민족이 기하학적 모양을 즐겨 표현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림 23> 무용총 고분 벽화  
출처: naver.com



<그림 24> 수산리 고분 벽화  
출처: 동양자수의 근원과 역사, p.60.

특히 한국의 전통 의상의 경우 길상문이 두드러진다. 전술(前述)하였듯이 문자의 좋은 의미가 옷을 입는 사람에게 미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그림 25>의 수저고리는 붉은바탕에 학과 새를 수 놓아 상류계급과 무병장수를 의미하며, 평범한 저고리에서는 볼 수 없는 문양의 조화가 아름답다. <그림 26>의 굴레는 호박(琥珀)과 색실 뭉치를 매달아 장식했고, 여러 가지 자생 길상 문양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그림 27>의 활옷은 소매 위자락에 이성지합(二性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이란 글씨를 수놓아 혼인을 축복하는 길상문을 두름으로서 장식성과 상징성을 의미하며 좌우로 균제된 문양배열을 배치하여 일관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어린이용 조끼<그림 28>는 수복귀다남(壽福貴多男)이란 길상문자를 수놓아 봉건적 유제인 남아(男兒)선호 관념을 표시 했으며, 조끼구조와 조각보자기를 혼합한 양식으로 그 형태가 특이하다.



<그림 25> 수저고리(19세기)  
출처: 한국 전통생활의 미, p.33.



<그림 26> 굴레  
출처: 이렇게 고운색, p.136.



<그림 27> 활옷  
출처: 이렇게 고운색, p.139.



<그림 28> 어린이용 조끼, 출처: 이렇게 고운색, p.131.

## V. 기하학적 문양의 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패션 사례연구

###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수의 기하학적 문양

기하학적 전통 문양의 형태적 특징은 정확한 형태가 지니는 단순성과 어떤 공간에도 맞춰질 수 있는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장식을 제거한 단순한 형태의 기본 도형으로 간결화 시킨 것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혹은 직선과 곡선의 복합으로 현대적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sup>27)</sup>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용된 바 있는 원형문과 물결문은 각각 Vivienne Tam<그림 29>과 Iceberg<그림 30>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특히 Iceberg는 주로 주변에 배치되어 장식적 역할을 담당했던 물결문을 과감히 끌고 오면서 도 모던함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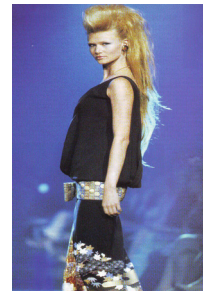
<그림 29> Vivienne tam  
출처: Firstviewkorea.com 05 S/S



<그림 30> Iceberg  
출처: collection 03-04 F/W



<그림 31> Gucci  
출처: Fisrviewkorea.com 07 S/S



<그림 32> Yumi Katsura  
출처: Book moda F/W

구찌의 07 S/S컬렉션<그림 31>과 Yumi Katsura의 F/W 컬렉션<그림 32>에서는 귀갑문을 각각 치마와 벨트의 문양으로 활용하여 기하학 문양이 반복될 때의 질서정연하고도 화려한 느낌을 살려내었다.

한편 아시아의 일본,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자를 이용한 도안도 두드러지고 있다. Christian Lacroix<그림 33>은 ‘복’을 추상화시킨 길상문을 등장시키며, Vivienne Tam<그림 34>은 용(龍)을 추상화시키되 글자를 둘러싼 장식 문양을 통해 용의 꿈틀거리는 도약의 느낌을 살려내었다. 이 경우에 글자의 의미까지 훌륭하게 살려내었다는 점이 놀랍다. Romeo Gigli<그림 35>는 오리엔탈 풍의 상의 소매에 떡살 무늬를 자수로 수놓



<그림 33> Christian Lacroix  
출처: firstviewkorea.com 02 F/W



<그림 34> Vivienne tam  
출처: firstviewkorea.com 03 S/S



<그림 35> Romeo Gigli  
출처: collection 03~04 F/W

음으로써 큼직한 원형문과 더불어 화려한 느낌을 살려내었다.

그러나 전통 자수가 갖는 중요한 특성인 수공성은 오늘날 재현되지 않고 있다. 문양은 차용하되 그 기법과 제작 방식은 매우 모던하며 전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즉, 수공성이 담보하는 정성과 주술성은 사라졌지만 기계화를 통해 대중화와 실용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 2. 기하학적 문양의 한국 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패션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을 복식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경주되고 있다. 전통 복식을 호텔용 가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문광희 2002), 웨딩드레스와 전통 혼례복을 결합해 보려는 시도(권순교 2006)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한(韓)’ 브랜드화 작업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韓)’은 의류뿐만 아니라 인형, 지갑, 열쇠고리 등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 문화의 패션화를 도모한다. 그 속에서 전통 자수의 기하학적 문양 역시 재창조되어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격자문을 이용한 원피스 <그림 36>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미니드레스에 조각에 의한 면 분할과 선적인 느낌의 자수를 활용해 한국전통조각보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림 37>은 실크벨벳과 타프타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선문의 자수가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슬림한 실루엣의 드레스이다. 직선의 컬러와 방향의 변화를 통해 현대적인 느낌의 자수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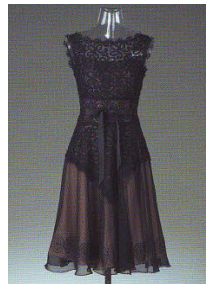
<그림 38>는 레이스 소재에 배색컬러의 실크안감을 덧댄 미니드레스로 화려한 레이스의 일부인 원형문을 모티브로 발취하여 안감 밑단에 자수를 사용함으로써 은은한 느낌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부각시켰다. <그림 39>는 테일러드 자켓으로, 블랙의 원단에 은사를 이용한 문자문의 자수가 모던함을 더하는 디자인이다. 새틴소재에 자수를 놓아 덧단 형식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려 형태를 고정시키고 자수가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작품이다.



<그림 36> Collected memories. 08. 격자문  
출처: 의류패션산업의 한브랜드화



<그림 37> Acculturation. 08. 선문  
출처: 의류패션산업의 한브랜드화



<그림 38> 우아한 미로. 08. 떡살문  
출처: 의류패션산업의 한브랜드화.



<그림 39> 문...새기다. 08. 문자문  
출처: 의류패션산업의 한브랜드화.

## VI. 결 론

우리는 더 이상 문화 특질이 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소속감을 증진시켜주는 데 국한되는 시대

에 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권의 개별적 특성은 본래의 맥락을 넘어 차용되고 유행되며, 소비된다. 거대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국지적 소용돌이 같은 지역화(localization) 역시 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방화(glocalization)와 맥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고민의 답이 바로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유행시킬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은 그 시장 규모가 방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이미지 그 자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무대에 전통적 디자인이 수용될 때의 그 파급력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선보이고자 하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 시도는 지속적이고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 중 하나로서 전통 자수의 기하학적 문양을 현대 패션에 응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통 자수는 한민족의 태동과 동시에 생겨났다고 하여도 과연 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민족적 특성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하학 문양 자수는 한국적 특수성과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모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하학 문양은 그 특유의 간결함과 명료함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러 디자이너들은 이미 세계무대에 이를 활용한 작품을 여러 번 선보인 바 있다.

보다 더 생활에 밀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로써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한(韓) 브랜드화 작업을 살펴보았다. 교복, 드레스, 평상복 등에 전통미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한(韓)은 기하학적 문양을 전통 자수의 느낌으로 살려내는 동시에 실용성과 모던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수 디자인 개발 및 이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을 통해 자수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지평을 확장하고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화시키는 재창조에 포석이 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1)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경기: 나남출판.
- 2) 이명준 (2007). 한국 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3), p.177.
- 3) 정천기 (2008.12.11.). 문화부 한국 패션 브랜드 세계화 나선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4)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자수), 네이버, <http://www.naver.com>
- 5) 김소영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 자수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 6)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편 (2000). 한국의 자수 어제와 오늘,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p.138.
- 7) 정영양 (2004). 동양 자수의 근원과 역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p.60.
- 8) 위의 책, p.121.
- 9) 한영화 (1994). 전통자수, 서울: 대원사, p.74.
- 10) 정영양 (2004). 앞의 책, p.73.
- 11) 정영양 (2004). 앞의 책, p.34.
- 12) 이명준 (2007). 앞의 논문, p.179.
- 13) 부드러운 표면과 조직상 대조를 이루는 단단하게 꼬인 실.

- 14) 바탕천과 구분되지 않는, 꼬지 않은 광택있는 실.
- 15)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p.12.
- 16) 정영양 (2004). 앞의 책, p.6.
- 17) 정영양 (2004). 앞의 책, p.61.
- 18) 이명준 (2007). 앞의 논문, p.181.
- 19) 김득황 (1973). 한국 사상사, 서울: 한국사상 연구소, pp.202-204. 송희정(2000). 전통자수와 현대자수의 조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에서 재인용
- 20) 송희정 (2000). 전통자수와 현대자수의 조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21) 이종민 (2004). 기하학적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22) 김선희 (1992). 기하학적 문양으로 design한 자수 작품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33.
- 23) 이종민 (2004). 앞의 논문, p.14.
- 24) 이종민 (2004). 앞의 논문, p.15.
- 25) 김덕겸 (2004). 한국 길상문, 서울: 형설출판사, p.368.
- 26) 위의 책, p.368.
- 27) 이종민 (2004). 앞의 논문, p.75.